■ 겨울 한파만큼 매섭다, 드라마 수난시대

정우성, 촬영중 부상…'아테나' 결방 결정

무릎 다쳐…"걷는 것조차 힘들다"
정찬우 머리 부상…봉합수술 받아
시청률 부진에 부상…악재 잇달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SBS 월화드라마 '아테나:전쟁의 여신'(이하 '아테나')가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정우성이 23일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면서 촬영이 불가능해 25일 방송분을 대체 프로그램으로 채우게 됐다.

정우성은 23일 밤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액션 장면을 촬영하다 차량 대파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사고 후 정우성은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24일 현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검사 결과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당장 걷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같이 촬영을 하던 연기자 정찬우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 정도가 더 심해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주연 정우성의 사고로 인해 당장 '아테나'의 방영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현재 주연 및 조연 배우의 부상으로 25일 방송 분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이 찍던 분량이 25일 방영분이고, 정우성은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액션 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SBS 드라마국 관계자는 "25일 정상 방송이 불가능해 '아테나 스페셜-수애의 비밀편'으로 대체 방송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드라마에서 비밀의 키를 쥐고 있는 특수요원 혜인 역 수애의 내레이션과 함께 그동안 본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과 메이킹 필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대표는 24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사고를 당한 두 배우는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고, 당분간 경과를 지켜보면서 촬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테나'는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드라마라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현재 10% 초반의 시청률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연기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잘 나가는 '싸인' 연출자 전격교체 왜?

장항준 PD 대신 김형식 PD 투입
"장PD,작가와 부부…내분 없었다"

박신양·김아중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싸인'(극본 김은희)의 연출자가 전격 교체됐다.

24일 제작사 골든썸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연출을 맡았던 장항준 감독이 11회부터 대본 작업에 전념하고 대신 김형식 PD가 새로 메가폰을 잡는다.

이 관계자는 "애초 드라마가 16부에서 20부로 늘어남에 따라 드라마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장 감독이 대본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11회가 방송되는 2월16일부터는 '카인과 아벨'과 '외과의사 봉달희' 등을 연출한 김형식 PD가 연출을 맡는다"고 말했다.

'싸인'은 현재 수목 드라마 1위를 두고 송승헌 김태희 주연의 MBC '마이프린세스'와 1%포인트대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연출자 교체가 이루어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드라마 방영 도중 연출자 교체는 특별히 시청률이 부진하지 않는 한 드문 경우다. 지난해 드라마 '대물'은 방송 초기 연출자가 오종록 PD에서 김철규 PD로 교체되면서 구설수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골든썸 관계자는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장항준 PD는 김은희 작가와 부부라는 점에서 내분은 없다. 부부가 공동 집필을 맡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탄탄한 대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반가워요 한국!" 월드스타 공리가 2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영화 '상하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다.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진지남' 송창의 1박2일 채울까?



'진지남' 송창의(사진), '1박2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연기자 송창의가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의 새 멤버로 물망에 올랐다.

KBS 예능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송창의는 최근 '1박2일' 제작진과 미팅을 갖고 출연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박2일'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이 하차하면서 현재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이승기, 김종민의 5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그룹 god 출신의 연기자 윤계상이 여섯 번째 멤버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 됐다. 하지만 윤계상은 영화 촬영 스케줄이 겹치면서 고사해 출연이 불발됐다.

이후 '제 6의 멤버' 찾기는 한동안 조용했지만, 제작진은 그동안 진지한 이미지와 예능적 감각을 가진 새로운 얼굴을 꾸준히 물색해 왔다.

송창의를 후보로 꼽은 데는 2009년 1월 SBS '일요일이 좋다-패밀리가 떴다'의 게스트로 출연해 11년 지기 친구 이천희와 함께 '엉성 브라더스'로 보여준 의외의 모습이 '1박2일' 제작진의 눈길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글래머 박민영, 베이글녀 종결자! 연기자 박민영이 모델로 활동 중인 란제리 브랜드 솔브(solb) 광고 화보에서 매혹적인 자태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 TBWA코리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받고 싶다"

공리 '상하이' 홍보차 내한…"미모유지비결? 평정심"

"아시아에서 유명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고 싶다."

27일 개봉하는 영화 '상하이'의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월드스타 공리(궁리·鞏利)가 첫 공식 방문에 대한 설렘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공리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존 쿠삭과 주윤발(저우룬파·周潤發), 와타나베 켄 등이 바빠서 내가 대신 왔다"며 시종 일관 밝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까운 중국에 있는데도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은 적이 없다. 비공식적으로는 광고 촬영차 몇 번 왔다"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에서 무척 유명하다. 내 작품을 들고 꼭 참석하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존 쿠삭, 주윤발, 와타나베 켄과 호흡을 맞춘 '상하이'는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린 진주만 공격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거대한 음모와, 운명적인 사랑을 다룬 영화다. 공리는 상하이의 마피아 보스 앤소니(주윤발)의 아내이자 일본으로부터 조국인 중국을 지키기 위해 저항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문의 여인 애나 역을 맡았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에 중국인으로서 참여한 소회를 묻자 "중국인들이 전쟁 시기에 겪는 마음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진실성이 느껴졌고 아주 진지하게 연기에 임했다"고 답했다.

이 날 공리는 블랙&화이트의 심플한 패션으로 단아한 미모를 과시했다. 통이 넓은 팬츠에 벨트로 포인트를 줬고, 긴 목선을 살린 화이트 블라우스로 멋스러움을 더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20대 부럽지 않은 외모를 지닌 비결을 묻자 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많은 배우들이 연출이나 시나리오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연기에만 몰입하며 배우 하나라도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공리는 24일 오후 레드카펫과 무대인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25일 출국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연예 뉴스 스테이션

● "죄질 중하다"…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24일 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연기자 김성민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천500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 JYJ 박유천, SM 지목 글 논란

JYJ의 박유천이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비난하는 듯한 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JYJ가 21일 발표한 뮤직에세이 '데어 룸스(THEIR ROOMS), 우리 이야기'에서 박유천은 "우리를 필요할 땐 가족, 우리가 필요로 할 땐 남"이라고 썼다. 이어 "드디어 해외에서 대박을 만들어 상상치도 못한 실적을 올렸단 소리에 가벼운 걸음으로 회사로 들어갔어. 그때 받은 정산서엔 실적이 마이너스"라며 동방신기로 활동하며 생긴 일을 회상했다.

카라 "현 경영진 퇴진·새 매니저 영입하면 복귀"

새매니저엔 DSP서 독립한 A씨 지목
오늘 만남…소속사 "대책 논의 중"



강지영 정니콜 한승연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 측이 DSP미디어와 25일 처음으로 만남을 갖는다.

DSP미디어 관계자는 24일 "카라 3인 측으로부터 내일(25일) 만나자는 메일을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요구조건을 들어보고 이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카라 3인 측은 24일 중 DSP미디어 측에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모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길어지면서 일단 "만나자"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3인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과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 영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DSP미디어와 카라 3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로, 지난해 DSP미디어에서 독립해 현재 신생 기획사를 운영중인 A씨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해결사'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난감하다"면서도 "우선 카라 3인이 DSP미디어에 복귀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카라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두고 가요계 내분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국남아가 소속된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가 중심이 된 젊은제작연대(젊제연)가 23일 카라 3인을 지지하고 DSP미디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 일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중견 제작자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24일 "젊제연 관련 사이트에 음원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티아라, 양파 등을 전속가수로 둔 김광수 대표는 최근 "카라 3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기 위해 DSP미디어를 나오는 것이라면, 향후 이들의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원조 섹시퀸' 김완선 돌아온다

6년만에 컴백…"그동안 공백 날 알게됐다"



가수 김완선(사진)이 6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온다.

2005년 소리소문없이 팬들의 곁을 떠났던 김완선이 3월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고 컴백한다. 또 김완선이 그동안 미국 하와이대 디지털아트학과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실도 뒤늦게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월간지 여성동아 2월호가 김완선과 나눈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김완선은 자신의 컴백 앨범과 관련해 "새 앨범의 제작과 프로듀싱 모두 내 돈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백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됐다"면서 "이제 비로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공백기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러웠다"면서 "혼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길어진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완선은 이모인 매니저와 갈등 끝에 결국 가요계를 떠났던 사연 등 그동안 겪은 많은 힘겨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릴 때 데뷔해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살아갈 힘으로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